

●●● 이번 새미르통신 7호는 원불교100년 기념성업회의 요청으로 원100사업안에 대한 구상안을 담았습니다.
[정책연구소의 공식 계획안이 아니라 교단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희망찬 결백백년대를 열어갈 사업안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밤잠을 설치고 싶다 원100 그 백찬 희망으로!

새미르통신 7호 원기 94년 12월 원불교100년기념성업 특집호

가슴이 쿵쾅 거려야죠

원100 말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 해야

우리의 원100 이죠

영산의 인연들 구름같이 물려오는 원100(교화대불공)

정진적공에 빠마디가 육신거리는 원100(자신성업봉찬)

세계에 내놓고 싶어 들썩들썩하는 원100(세계주세교단)

세상의 아픔과 눈물 너른 품으로 보듬어 안는 원100(대자비교단)

스승님 큰 산처럼 우뚝 하게 받들어 모시는 원100(대보은불사) 이어야죠

개벽 회상 만난 기쁨에 왈칵 눈물 쏟고

스승님들 선진님들 그리움에 울컥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 원100인가요

마치를 든 공장부터 정사 잡은 관리까지

부처님 꿈꾸지 않으면

파란고해 일체 생령 앞에

광대무량 낙원세계 여기 있소 못하면

그게 어찌 원100이겠어요

법기보살도랑 금강에서

일원상기 휘날리며 대법회 볼 생각에

목이 터져라 원불교 만세 외치고 싶어

밤잠을 하얗게 설치도

그래도 좋아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원100! 그 희망과 감격으로

밤잠을 설치고 싶어요!



젊은 시절 긴 머리를 잘라 팔아서 대중사에게 지어드린 항라두루마기 앞에서 그 시절을 회상하시는 고 용타원 서대인 종사님.

세상은 지금



환경

벌목으로 1분마다 축구장 35개 면적의 숲이, 15분마다 동식물종 1개가 사라지고 있다. 오늘날의 인간처럼 광범위하게 생태 순환에 개입한 종은 역사상 없었다.

전쟁

세계 인구 1인당 160달러가 군비로 지출되며, 이 중 절반가량을 미국이 지출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이 5% 떨어질 때마다 그곳에서 분쟁이 일어날 개연성은 50%나 더 높다. 빈곤이 분쟁(내전과 테러, 전쟁)을 낳고, 분쟁은 빈곤을 더욱 증폭시킨다.

인권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소녀를 포함해 200만 명에 이르는 여성이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있다. 14세 미만 아동 1억 9,000만 명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난민 2,400만 명이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자기 나라 안에서 공격과 탄압에 노출된 채 피난처를 찾고 있다.

빈곤

0.14% 사람들이 가진 자산만으로 세계 인구의 40%가 24년 동안 살 수 있다. 최빈국과 선진국의 1인당 GDP 비율은 1970년 1:19에서 지금은 1:96으로 악화되고 있다. 하루벌이가 채 2달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26억 명이나 된다. 매년 아동 1,100만 명이 죽어가고, 그중 절반 정도가 영양실조와 그로 인해 저항력이 떨어져서 죽어간다.

건강

평균적인 인도 가정의 마실 물을 생수로 대체한다면 유흥의 절반 이상을 써야 한다. 개발도상국 어디선가는 3초마다 아기가 한 명씩, 그것도 사소한 질병으로 죽어간다. 연간 의약품 연구비 1,000억 달러 중 90%가 세계 인구의 10%도 안 되는 부자만을 위한 것이다. 더러운 물과 열악한 위생환경 때문에 매년 180만 명에 이르는 아동이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전쟁과 내전으로 죽는 사망자의 6배에 이르는 아동이 매년 설사로 사망한다.

교육(실업)

개발도상국 성인 4명 중 1명꼴로 글을 읽고 쓰지 못한다. 성인 문맹자의 2/3가 여성이다. 선진국의 1인당 교육예산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35배나 높고, 학생 대비 교사 비율은 2배가 차이 난다. 전 세계적으로 25세 미만 젊은이 8,500만 명이 '통계상' 실업 상태에 있다.



우리가 있어요!

대중사님 꿈꾸신 세상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에 앞장선 우리가 있습니다.

교화

국내 505개 교당, 국외 66개 교당 및 선교소(원기 93년 12월 현재)

교육

원광대학교, 영산전자대학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원광보건대학, 원광디지털대학, 원광고등학교 외 7개의 중·고등학교, 8개의 대안학교, 141개의 유아 교육기관

자선·복지

교단원로초양시설 5개소, 노인복지시설 52개소, 종합사회복지시설 15개소,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 보육수용시설 5개소, 후원 및 후견시설 6개소, 종합병원, 한방병원, 보화당한의원 등 22개의 의료기관

문화

원불교신문(주간), 원광(월간), 서울, 부산, 익산, 광주에 원음방송국(FM라디오)운영 전국 네트워크 형성, 한방건강TV, 원불교TV

훈련 전국 23개 훈련기관

산업

4개의 농원, 원광제약주식회사, 보화상사, (유)푸른생명, 영산식품, (주)원창, (주)천도, 그리고 원광중앙신용협동조합 등 6개의 신탁, 2개의 새마을금고

단체

원불교여성회, 봉공회, 청운회, 청년회 등 30개 넘는 단체들이 활동 중.



원불교 단체

- | | | | | |
|-------------|----------------|---------------|----------------|---------------------------|
| 1. 원광사우회 | 6. 원불교문인협회 | 13. 원불교대학생연합회 | 20. 원불교천지보존회 | 27. (사)평화의친구들 |
| 2. 원불교교사회 | 7. 원불교미술인협회 | 14. 원불교음악인협회 | 21. 하늘사람들 | 28. (사)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 |
| 3. 원불교교수협의회 | 8.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 15. 원불교중앙봉공회 | 22. 한국원불교학회 | 29. (사)한울안 운동30. (사)마음공부회 |
| 4. 원불교국악인협회 | 9. 한국스카우트원불교연맹 | 16. 원불교중앙청년회 | 23. 원불교에스페란토회 | 31. (사)청수나눔실천회 |
| 5. 원불교다인협회 | 10. 원불교여성회 | 17. 원불교중앙청문회 | 24. 원불교상담연구회 | 32. 원불교인권위원회 |
| | 11. 원불교연극인협회 | 18. 원불교호스피스회 | 25. (사)삼동청소년회 | 33. 원불교법조인회 |
| | 12. 원불교원친회 | 19. 천심회 | 26. (사)삼동인터내셔널 | 34. 원불교기업인회 |



해외 교화활동

원불교,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가서는 교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긴급 구호활동

지진, 수해,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무아봉공 땀흘리는 개벽 일꾼들 우리교단의 자랑이고, 힘이고, 미래입니다.

스승님 경륜에서 성업의 길을 찾다

경산 종법사 원불교100년 성업봉찬 5대지표



1. 教化大佛供 교화대불공

교화야말로 성업봉찬의 첫째 사명이니

재가 출가 전교도는 교화의 대주역이 되고 개척자가 됩시다.

2. 自身聖業奉讚 자신성업봉찬

자신이 자신에게 성업을 봉찬하여

성인의 심법을 담은 대법기가 되도록 정진적공 합시다.

억만 번 몸과 마음을 바루고 바루어서 대자비의 불보살로 진
급하고 진급합시다.

3. 世界主世教團建設 세계주세교단건설

교단의 역사를 속 깊게 성찰하고 미래세상의 변화를 예측하
여 인류를 구원할 세계적 주세교단의 면모를 만들어 가야 하
겠습니다. 세워야할 주체는 더욱 세우고, 고쳐야 할 것은 과감
하게 고쳐서 미래지향적으로 교단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경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교화대불공 : 교화를 살리자!

- **목적** 교화성장의 전기 마련, 지속성장의 기틀 수립
- **방침** 교직원과 현장 중심의 협의를 통해 직접적인 교화성장 프로그램 지원, 3대 3회 설계와 연계한 중장기 교화 계획수립 및 단계적 실시
- **마음공부연구원(교화콘텐츠개발원) 설립**
교화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재 등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
(예) 12개 교당에 연구인력을 지원(2-3명)해서 주제별 프로그램을 개발 하도록 하고 중앙 사무국(5명 정도)에서 이를 심화시켜 교단과 사회에 보급, 매년 12개 프로그램개발
- **마음공부훈련원(교화인재훈련원) 설립**
원무 양성 및 교화단장 등 재가교역자를 양성 배출하고 마음공부프로그램 지도자를 전문적으로 훈련 양성하는 기관 운영, 유능한 출재가교역자 양성
(예) 매년 원무 100명 양성, 단장 4,000명 훈련, 프로그램별 연수 진행
- **교화인증제 실시**
마음공부프로그램은 물론, 지도자의 프로그램 운용능력을 인증하여 교화인력의 교화력을 객관화하고 점진적으로 향상시켜나감

(예) 마음공부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훈련법과 교화프로그램을 마음공부훈련원에서 훈련 받아 프로그램별로 인증을 받게함, 마음 공부지도사 양성-교당에 마음공부방 부설

● 교화지원재단 설립

어려움에 처한 현장 교화자를 돕고, 현장 교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여 재단 운영, 미자립교당 자립 지원에 역점, 마음 공부방 설립 지원

(예) 원기100년 영세교당 제로화 운동, 10만 명 성지순례 지원

● 중장기 교화정책 수립 및 적극적인 홍보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 우선순위 선정, 사회 흐름 포착, 원불교의 사회적 인지도 및 호감도 향상
(예) 매년 정책델파이, 사회조사, 호감도 조사 실시

2

자신성업봉찬 : 나부터 공부하자!

- **목적** 모든 교도가 신앙·수행에 적공하여 대중사님 닦아가는 불보살로 진급
- **방침** 대중 공모를 통해 의견수렴 - 사업 선정 - 실시 - 사회적 운동화로 발전시킴

● 범위향상 운동

공부하는 교화단 만들기, 공부의 맥을 대는 심사(心師) 모시기, 공부를 상호 점검하는 범위별 훈련모임 만들기 등 공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각종 활동 지원

● 단장되기 운동

마음공부훈련원과 연계된 교화단 단장·중앙 훈련을 통해 범위향상과 교화력 배양, 나아가 현재 5000개 정도의 교화단을 2만단으로 불릴 수 있도록 매진

● 전교도 공동 유무념 운동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유무식남녀노소 모두 흥미를 갖고 깊은 단계로 몰입할 수 있는 공부법을 제공

(예) 마음공부연구원(교화콘텐츠개발원)에서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마음공부훈련원(교화인재훈련원)에서 전문가를 양성하여 사회적 마음공부 운동으로 확산시킴

● 전교도 1주 1편 일기 쓰기 운동

구체적인 일기 기재 훈련, 우수일기 모음집 출판, 일기지도 전문 인력 양성, 일기를 통한 마음공부 성공 사례 발굴로 사회운동화

● 1분(10분, 1시간) 선헌기 운동

다양한 계층을 목표로 한 선법교재 배포, 선 전문가 양성 과정 개설, 선 체합집 발간, 선에 대한 친근한 접근을 유도하여 사회적 확산을 가능케 함

3

세계주세교단건설 : 교단혁신으로 세계로 미래로!

- **목적** 세계적 종교로의 도약을 위한 교단 혁신을 통해미래지향적 교단으로 거듭남
- **방침** (국내) 교단혁신사업과 연계 - 미래 지향적 교단 혁신 추진, (해외) 의견수렴에서 사업선정까지 해외교화자 중심으로 전개
- **교화중심의 행정 혁신**
인사, 육영, 교육, 훈련, 예산, 문화, 복지, 산업 등 모든 분야의 활동은 '교화 위주 사업 중'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 **교화단 공동교화제 확대**
교화단 공동교화제를 보완 확대하여 출가교역자의 기초생활 보호 및 전문교화 여건 마련, 영세교당의 통합 방안 및 토탈교화 방안 모색
- **교법의 보편윤리화**
세계화 정보화로 인한 미증유의 문명적 전환에 처하여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인류의 공통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교화적 연구 수행
- **세계교화지원재단 설립**
국제교화와 관련한 교서번역, 콘텐츠개발, 인재양성, 교화지원활동 등을 수행
- **미주총부(원달마센터) 건립**
세부적 사업계획은 세계교화지원재단 준비위를 중심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

4

대자비교단 : 세상의 아픔을 품어 안아라!

- **목적** 사은님 은혜에 보은하는 무아봉공의 이상형을 구현함
- **방침** 은혜심기 운동본부를 확대 개편한 후, 봉공회, 청운회, 여성회, 청년회 등 유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선정 및 추진단, 사은사요의 교법 정신을 구현하도록 기존 단체별 활동을 조정하고 전문화함
- **천지보은**
은 사상에 바탕한 새로운 환경운동 전개 (예) 국내외 시민조직과 연대하여 '천지보은회'의 활동을 국제화함
- **부모보은**
복지 / 자선 / 무자력자 보호, 효사상 · 경로사상의 현대화 · 세계화 (예) '봉공회'를 활용한 무자력자 보호 및 고령화에 따른 독창적인 복지 프로그램 창안 (예)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가족상담소 운영
- **동포보은**
자리아타의 새로운 사회운동, 전 교도의 자원봉사 활동, 전 지구적인 신자유주의적 전횡에 맞서는 대안적 경제 패러다임 제시 및 실천운동 (예) 교당의 지역적 특성과 교도의 연령에 맞는 전 교도 자원봉사시스템 구축 (예) '청운회', '청년회 - 평화의친구들' 조직을 확대 · 개편하여 국제 구호단체 위상 강화 (예) 통일 이 후를 대비하는 장기적 안목의 통일운동단체를 출범시킴 (예) 기업윤리를 강제할 수 있는 소비자운동 및 공익적 차원의 사회적 기업 설립
- **법률보은**
법률개폐 및 법률구조 운동 (예) '인권위원회'와 '법조인회'를 확대한 '법률보은회'의 출범 (예) 원불교 인권위원회의 실무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영향력 확대
- **자력양성**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진화를 위한 운동

● **지자본위**

각종 차별을 척결하고 지자를 우대하는 사회 풍토 조성 운동

(예) 교육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평등 운동

● **타자녀교육**

모든 교당, 기관이 참여하는 장학 · 육영 운동 (예) 소년소녀가장 지원 운동, 전무출신지원자 발굴 · 지원 운동

● **공도자 숭배**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에 대한 홍보 및 지원

(예)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소태산 사회공헌상' 수여

5

보은대불사 : 대산 종사님을 인류의 스승으로!

- **목적** 대산종사님 은혜를 되새기고 그 공덕에 보은함, 인류의 스승으로 추모존송
- **방침** 대산종사님백분과 중심의 사업선정, 원백기념성업과의 전체적 조화에 유념
- **추모사업**
법문집출간, 성탑건립,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 **심전계발**
교화대불공과 연계하여 대산종사님을 계승하는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
- **종교연합운동**
종교 갈등의 중재, 제 3세계 종교지도자와의 교류, 관련 회의 유치 · 지원
- **학문적 조명**
대산종사님 사상의 의의를 되새기는 학술대회 개최
- **추모 순례**
대산종사님의 체취와 업적이 살아있는 성지 순례 프로그램 개발

원100!

그 가슴 벅찬 희망의 시나리오

- 95 개벽의 역사를 추억하다
- 96 대희상 창립의 주인들이 되라!
- 97 바다 한 번 막아볼 참이요?
- 98 천의에 감동이 있게 하여 불지어다!
- 99 창생을 제도하라!
- 100 원불교, 우리가 있다!
- 101 금강이 현세계하니, 결복백년대!

96 以小成大

대회상 창립의 주인들이 되라!

우리 모두 후천개벽 주세불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심제자가 된다.
모범적인 단장이 되어 단원에 불공하여 교화대불공에 앞장선다.
교도님들이 이소성대의 정신으로 근검절약하며
자발적으로 성업에 나서기 시작한다.



특히 진실하고 신심 굳은 아홉 사람을 먼저 고르시사
회상 창립의 표준 제자로 내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근래에 그 주체가 위(位)를 잃고 권모 술수가 세상에 횡행하여
대도가 크게 어지러운지라,
우리가 이 때에 먼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나날이 쇠퇴하여 가는 세도(世道)인심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영원한 세상에 대 회상 창립의 주인이 되라.」
(대종경 서품5장)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인일단(十人一團)의 교화단을 조직하고,
또 저축조합을 만드시고,
금주, 금연, 보은미저축, 공동출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개벽의 역사가 이 땅에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선진님들의 땀방울과 함께...

이제 우리가 대회상 창립의 주인공, 표준제자 되어야죠.
우리 모두 단장이 되어 시방세계 모든 사람 두루 교화해야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소성대 절약정신으로 원100성업 이뤄야죠.

교화대불공

- 심사(心師)모시기
- 전국 합동 득도식(총부, 변산)
- 1분 기도하기(12:00-12:01) 캠페인
- **적극적 홍보로 호감도 2.0% 높이기(2.9%)**
- 마음공부연구원 / 12개 프로그램 개발(총24개)
- 마음공부훈련원 / 단장 양성 4,000명 양성 (총6,000명) / 원무 100명 양성
- 마음공부 지도사 50명 양성(총60명) / 마음공부방 개설 50개(총60개)
- 교화인증제 실시
- 교화단 공동교화제 실시 3단(총5단)

2.9%

자신성업봉찬

- 단장 훈련 참여, 원무 지원
- 정전 외우기 운동
- 법위향상 운동

세계주세교단

- 미주총부(원달마센터)신축 봉불
- 역경사업
- 세계교회지원재단 기금조성
- 인재양성
- 국제학술행사
- 교구자치제 전면 실시
- 교역자제도개선
- 이단치교 체제 확립
- 교화구조개선
- 미자립교당 20%포인트 감소(총50%)
- 용금 5만원 인상(총41만원)

대자비교단

- 재가단체들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치유할 프로그램 시작
- 상담소 설립 3개
- 사면실시 준비

보은대불사

- 대산 종사님 법어집 출간
- 성지 추모 순례

97

一心合力

바다 한 번 막아볼 참이오?

선진님들의 일심합력의 방언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대자비교단의 주역으로 나선다.

교도님들 마다 최소한 한 분아 이상의 사회교화를 시작한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호감도 상승에 힘입어 본격적인 신입교도 맞이하기를 시작한다.



대종사 길룡리 간석지의 방언(防堰)일을 시작하사 이를 감역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구인은 본래 일을 아니하던 사람들이로되
대 회상 창립 시기에 나왔으므로 남다른 교생이 많으나
그 대신 재미도 또한 적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든지 남이 다 이루어 놓은 뒤에 수고 없이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교생을 하고 창립을 하여 남의 시조가 되는 것이 의미 깊은 일이니,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

그러한 회상을 건설하자면 그 법을 제정할 때에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 문명 세계가 열리게 하며,
동(動)과 정(靜)이 골라 맞아서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고,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하게 하여야 하므로,

모든 점에 결함됨이 없게 하려함애

자연 이렇게 일이 많도다.」(대종경 서품8장)

교화대불공

- 천일 기도
- 전국 합동 득도식2회(충부, 영산)
-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캠페인
- 호감도 2% 높이기(4.9%)
- 마음공부연구원 / 12개 프로그램 개발(총36개)
- 마음공부훈련원 / 단장 양성 4,000명(총10,000명) - 원무 150명 양성(총250명)
- 마음공부 지도사 50명 양성(총110명) / 마음공부방 개설 50개(총110개)
- 교화인증제 실시
- 교화단 공동교화제 실시 5단(총10단)

4.9%

자신성업봉찬

- 단장 훈련 참여, 원무 지원
- 일기쓰기 운동
- 법위향상운동

세계주세교단

- 미주총부(원달마센터)중심으로 세계교화 추진 계획 작성
- 역경사업
- 세계교화지원재단 기금조성
- 인재양성
- 국제학술행사
- 교역자제도개선
- 이단치교 체제 확립
- 교화구조개선
- 미자립교당 20% 포인트 감소(총30%)
- 용금 5만원 인상(총46만원)

대자비교단

- 재가단체들 중심의 사회운동 본격 전개
- 세계적 NGO와의 연계
- 상담소 설립 5개(총8개)
- 대사면 실시

보은대불사

- 대산 종사님 추모 앨범 및 영상물 제작
- 성지순례
- 학술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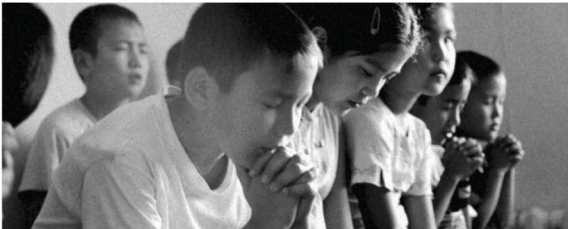
98 死無餘恨

천의에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8월 2일 천일기도를 해제하고 8월 3일부터 두 번째 천일기도를 결제한다.

사무여한의 기도로 진리의 위력을 얻어 법열 충만한전급의 삶을 산다.

1단계(95-97년)성업을 중간 평가하고 후반기(98-101년)를 기도의 위력으로 열어간다.



대중사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가정·사회·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天意)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 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에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 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 하시어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대중경 서품13장)

교화대불공

- 천일 기도 / 5대지표 및 민족통일 염원
- 전국 합동 득도식2회(총부, 성주)
- **호감도 4% 높이기(8.9%)** **8.9%**
- 민족통일을 위한 1분기도 캠페인(12:00-12:01 / 기도비로 북한돕기)
- 마음공부연구원 / 12개프로그램 개발(총48개)
- 마음공부훈련원 / 단장 양성 4,000명(총14,000명) 원무 200명 양성(총450명)
- 마음공부 지도사 50명 양성(총160명) / 마음공부방 개설 50개(총160개)
- 교화인증제 실시
- 교화단 공동교화제 실시 5단(총15단)

자신성업봉찬

- 단장 훈련 참여, 원무 지원
- 법위향상운동
- 대산 종사 법어 봉독하기

세계주세교단

- 미주총부(원달마센터)중심으로 세계교화 추진
- 외국어경전 발간
- 세계교회지원재단 기금조성
- 인재양성
- 국제학술행사
- 미자립교당 20%포인트 감소(총10%)
- 용금 8만원 인상(총54만원)

대자비교단

- 재가단체들 중심의 사회운동본격 전개 및 결실
- 세계적 NGO와의 연계
- 상담소 설립 5개(총13개)

보은대불사

- 만성전 건립
- 성지 순례

99

濟生醫世

창생을 제도하라!

대산종사 탄생100주년을 맞아 인류의 큰 스승으로 추모 존승한다.
현대사회의 아픔을치유하는 대자비교단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종교간 대화를 선도하여 대산 종사의 경륜을 계승 실천한다.



원기 사년 팔월 이십일일에 생사를 초월한 구인 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드디어 백지혈인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 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陰府公事)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도다.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 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비록 천신 만고와 합지 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 애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 할 것인 즉, 그 끝없는 순일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하시고, 법호와 범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公名)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대종경서품14장)

교화대불공

- 천일 기도
- 민족통일을 위한 1분기도 캠페인(12:00-12:01/ 기도비로 북한돕기)
- 전국 합동 득도식2회(총부, 만덕산)
- 호감도 5% 높이기(13.9%)
- 마음공부연구원 / 12개 프로그램 개발(총72개)
- 마음공부훈련원 / 단장 양성 4,000명(총18,000명), 원무 250명 양성(총700명)
- 마음공부 지도사 50명 양성(총210명) / 마음공부방 개설 50개(총210개)
- 교화인증제 실시
- 교화단 공동교화제 실시 5단(총20단)

13.9%

자신성업봉찬

- 단장 훈련 참여, 원무 지원
- 법위향상운동
- 30분 이상 좌선하기

세계주세교단

- 미주총부(원달마센터)중심으로 세계교화 추진
- 외국어경전 발간
- 세계교화지원재단 설립 출범
- 인재양성
- 국제학술행사
- 영세교당 10%포인트 감소(총0%)
- 용금 8만원 인상(총62만원)

대자비교단

- 부문별 사회운동을 세계적 NGO로 성장시킴
- 상담소 설립 5개(총18개)

보은대불사

- 대산 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 대법회
- 만성전 낙성 봉불
- 학술대회
- 성지 순례

100

主世教團

원불교, 우리가 있다!

땀 흘려 준비한 행사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긴다.
각종 행사를 집중하여 교단 홍보를 극대화한다.
미국에서 원불교100년 기념 국제 행사를 열어 세계주세교단으로의
도약을 알린다.
대규모 신입교도를 맞이한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사께서 우리 회상 초창 당시에 친히 구술하신 가사가운데
“사 오십 년 결실(結實)이요, 사 오백 년 결복(結福)이라”고 하신 말
씀이 있었나니, 이는 우리 회상의 전도를 예언하심이니라...
우리 회상은 창립 사 오십 년대 안에 이 나라에서 완실한 결과를 볼
것이요, 사 오백 년대 안에 온 세계에 편만하여 일체생령의 한 가지
귀의하는 바가 되리라.」(정산종사법어 도운편 13장)

지친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
살기 싫은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답을 주고,
살 맛나게 해주는 그런 종교!

그런 종교가 원불교라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원100입니다.
박수치는 사람들에게 문 활짝 열고
어서 와서 함께 하자고 환영하는 원100입니다.

교화대불공

- 천일 기도
- 전국 합동 득도식2회(총부, 좌포)
- 해외 이민 가족 교화
- 호감도 6% 높이기(19.9%)
- 마음공부연구원 / 12개프로그램 개발(총84개)
- 마음공부훈련원 / 단장 양성 4,000명(총22,000명)
원무 250명 양성(총1,000명)
- 마음공부 지도사 50명 양성(총260명) / 마음공부방 개설 50개(총260개)
- 교화인증제 실시
- 교화단 공동교화제 실시 5단(총25단)

19.9%

자신성업봉찬

- 단장 훈련 참여, 원무 지원
- 법위향상운동
- 정전 외우기

세계주세교단

- 원100기념 국제 행사 개최(미국)
- 인재양성
- 용금 8만원 인상(총70만원)

대자비교단

- 부문별 사회운동의 결실을 세계화
- 상담소 설립 5개(총23개)

101

結福教運

금강이 현세계하니, 결복백년대!

금강산에서 원100기념법회를 개최하고, 주세교단으로서의 출범을 선언한다. 민족 분단 극복에 대한 교단적 의지를 천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새로운 비전선포로 현대문명을 치유할 대안을 제시하며 참 문명건설의 전망을 제시한다.

3대 3회말(원기108년)까지의 교단계획을 준비한다.



대종사 개교기념일을 당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큰 보물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곧 금강산이라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요,
금강산은 반드시 그 주인으로 인하여 더욱 빛나서,
이 나라와 금강산과 그 주인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인연으로
다 같이 세계의 빛이 되리라…」 (대종경서품6장)

금수강산 허리 자른 휴전선, 누가 거둬야 하나요?
골육상쟁의 업보는 누가 녹여야 하나요?
상생평화의 길은 누가 내야 하나요?
우리, 우리 원불교가 해내지 못하면 그 누가 할까요?

바라옵건대
원100의 상생 기운이 뭉치고 넘쳐서
휴전선을 녹이고 금강산에 굽이쳐 꽃피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민족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게 하소서!
온 겨레 하나되어 은혜누리 즐기게 하옵소서!

교화대불공

- 천일 기도
- 전국 합동 득도식2회(총부, 서울)
- 해외 이민 가족 교화
- 호감도 10% 높이기(29.9%)
- 마음공부 연구원 / 12개프로그램 개발(총96개)
- 마음공부 훈련원 / 단장 양성 4,000명(총26,000명)
원무 250명 양성(총1,250명)
- 마음공부 지도사 50명 양성(총310명) / 마음공부방 개설 50개(총310개)
- 교화인증제 실시
- 교화단 공동교화제 실시 5단(총30단)

29.9%

자신성업봉찬

- 단장 훈련 참여, 원무 지원
- 법위향상운동

세계주세교단

- 금강산에 종교간대화기구 또는 종교연합운동기구 설립

대자비교단

- 재가단체들 중심의 해외 사업 본격 전개
- 상담소 설립 5개(총28개)

보은대불사

- 추모 성지 순례

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대종경」, 제2 교의품 2장 중에서

- 「...마음이 투철하게 열린 사람은 대중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니라.」 「대종경」, 제4 인도품 51장 중에서

▶ 이상의 법문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개벽시대의 종교는 '사회적 소통'을 전제로 한 생명력 있는 가르침을 지향해야 한다. 교리도에서 '인과보응의 신앙문'이 사온과 사요로 구성된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는 **사회와의 소통 자체를 '신앙의 차원'으로까지 격상시킴으로써 공공적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원불교의 강한 사회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은 불법의 시대화·생활화·대중화를 통해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樂園)으로 인도'하려는 원불교의 개교 동기를 되새겨 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3. 교단 결북기의 준비 : 능동적 사회소통을 위하여

-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세계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그 산의 주인을 찾을 것이니, **주인될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오는 손님을 대접하리요.**」 「대종경」, 제14 전망품 5장 중에서

●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너를 세상의 많은 생령이 다 불은(佛恩)을 입기 어려울지라,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리요. 그대가 나를 찾아와서 묻는 것이 곧 지식을 넓히는 법이요, 나는 그대를 대하여 그대의 말을 듣는 것이 또한 지식을 넓히는 법이라, ...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일이든지 나 혼자 연구하여서만 아는 것이 아니요, 여러 사람을 응대할 때에 거기서 지식을 취하여 쓰노니...**」 「대종경」, 제3 수행품 29장 중에서

- '능동적 사회소통'은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발휘하여 미래의 위험을 경고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선택을 돕는 과정을 포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교단의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신뢰성과 정당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 그러므로 **미래사회로부터 현재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파악하는 '퓨처마킹(Future Marking)'**이 필요하다. 미래예측을 위해서는 수학적 모형, 계량적 기법,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양적 방법과 더불어 전문가 패널, 시나리오 작성, 정책델파이 등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이나 창의적 예측이 동원되는 질적 방법도 활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미래예측은 '쟁점 확인 -> 통계적 분석 -> 전문가 판단 -> 정책 우선순위 분석'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교단 결북의 원기 100년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6년 뒤 길게는 수십 년 뒤의 인류사회를 예측하고 어떤 쟁점들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시급한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교단 구성원 각자의 활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핵심가치도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입각하여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원백기념성업회의의 활동은 '능동적 사회소통'의 노력으로서 **정밀한 미래예측을 반영한 '주제-강령-과제-사업'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II.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

‘유엔미래포럼본부’에서는 2030년에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미래예측전문가들이 선정한 <35가지의 미래사회변화 예측(2009)>을 제시하였고, 글로벌 미래연구 싱크탱크인 ‘밀레니엄프로젝트’에서도 미래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15대 지구적 도전과제(2009)>를 제시하였다. 기타 미래보고서들을 중심으로 교단적 대처가 필요한 국제적 차원의 주요 과제 3가지를 꼽자면 다음과 같다.

1. 파국적 환경 재앙

● 중국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영향으로 연 평균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량은 2000년 이후 급속도로 늘고 있고, 그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1,250억 달러의 손실액과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현재 전 세계 7억 명 정도가 물 부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 및 인구증가로 인해 2025년 30억 명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약 80%가 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매년 180만 명이 설사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 세계 인구의 도시집중화는 전염병의 창궐을 조장하고 있다(2030년 인류의 80%가 도시 거주). 전염병으로 인해 한 해 약 1,70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밖에도 **육식의 증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속성 동물사육의 일반화**는 직접적 환경파괴뿐 아니라 비만의 증가 및 신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 환경오염은 우리가 체반아야 할 **천지의 도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시정하는 일은 천지보은의 출발점**이 된다. 국제적 환경단체와 연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호 활동과 교리에 입각한 생태이론 개발, 무분별한 개발 저지, 생물다양성 보존, 채식 캠페인, 환경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구호 활동 등을 전개해야 한다.

2. 폭주하는 자본주의

● 유엔개발계획(UNDP)은 이미 <1996 인간개발보고서>에서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분석해 앞으로 닥쳐올 세계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① **고용 없는 성장**: 전반적으로 경제는 성장하지만 고용의 기

회는 확대되지 않는다. ② **무자비한 성장**: 경제 성장의 열매를 대부분 부자들만 누린다. ③ **무언의 성장**: 경제에서의 성장이 민주주의나 권력의 위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④ **뿌리 없는 성장**: 경제 성장으로 사람들은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⑤ **미래 없는 성장**: 후손이 써야 할 자원까지 모두 낭비해 버린다.

●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1달러 미만 생활자는 11억 이상, 2달러 미만 생활자는 23억이 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국제적으로는 서방국가의 소득이 국가적으로는 최상위 부유층의 소득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중적 양극화’**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증가로 인해 **2050년 세계 총인구는 91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식량 생산이 30년 내에 두 배로 증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개발원조액이 1,198억 달러(2008)에서 1,451억 달러(2010)로 늘어나지만 빈곤인구의 감소는 요원하다.

▶ 자본주의를 인간중심적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개혁’의 가르침을 사회화**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기존의 양적 발전을 중시하는 성장경제에 대한 개념을 보은봉공의 호혜성을 강조하는 **‘행복경제’의 개념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세계적 차원의 기아구제 활동과 제 3세계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교육사업이나 경제협력 같은 근원적 빈곤퇴치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야 한다.

3. 문명과 문화의 충돌

● 세계화의 획일적 수렴현상은 지역적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

들이는 **근본주의자들의 ‘정체성 전쟁’을 활성화시켰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적 범죄집단과 연계하여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보유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어 국제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 세계적 차원의 인구이동의 증가 역시 지역 내 문화적 충돌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오늘날 인구이동의 대부분은 경제적 문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토착민과 이주민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내재한 상태에서 사회적 고통이 심화되는 경우 비이성적인 ‘희생양 찾기’ 혹은 ‘소수자 콤플렉스’와 같은 집단심리가 발동하여 민족 간 인종간 국가간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

● 민주적 인권적 국제질서의 확립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서방의 오만과 제3세계 독재의 폭력을 제어해야 한다**. 전자의 사례로는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선진국의 이기적 욕망으로 인해 매년 5천만 톤의 전자 폐기물(e-waste)이 개도국에 버려지고 있고, 후자의 사례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외면하는 독재국가의 자국민에 대한 억압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문화상대주의를 주장하며 야만적 관습을 온존시키는 경우도 있다. 한편 국제적 비윤리적 관행에 기댄 돈세탁, 뇌물, 마약거래, 사이버 범죄와 같은 초국적 범죄도 확산일로에 있다.

▶ 다극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종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이익을 뛰어 넘는 **지구적 차원의 보편윤리 확립이 절실하다**. 따라서 원불교는 인권, 투명성, 윤리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국제기구 참여와 종교활동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및 교단 미진출 지역에 대한 체계적 교화활동을 통해 **일원주의 사상을 인류사회의 보편윤리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IV. 한국사회의 변화와 과제

역사를 통해 나타난 수많은 강대국의 부침 사례는 세계 각국 정부에 ‘시대에 대한 통찰력이 곧 국가의 미래’라는 깨달음을 얻게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시절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 보고서인 ‘비전 2030 - 함께 가는 희망한국’을 내놓은 바 있고, 현 정부 역시 ‘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2020 / 2050 미래전망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미래예측이 담긴 국가보고서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변화상을 교단적 관점에서 정리했다.

1. 인구부문 변화상

● **저출산**: 한국의 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으로 정점(peak)에 도달할 것이며, 2050년에는 4,234만 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6,190천명(73.4%)을 고비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35,506천명(72.0%), 2050년에는 22,424천명(53.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 연령층**은 2005년 20,587천명(전체 생산인구의 59.6%)에서 2010년 20,196천명(56.7%), 2020년 18,078천명(50.9%), 2050년 9,957천명(44.4%)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령화**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결과적으로 고령인구의 절대치와 상대치를 모두 높인다. 앞으로 고령인구 14%인 고령사회는 2018년에 도달되고, **20%인 초고령사회는 2026년에 도달될 것인데**,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기간이 일본 36년, 독일 77년, 미국 94년, 영국 94년, 영국 97년, 프랑스 154년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26년은 너무 빠르다. 사회적 부양비의 증가는 가족의 부담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 **실버문화** : 앞으로 고령인구에 포함될 개인들은 높은 교육과 소비 수준을 갖춘 세대이기 때문에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높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와 주체의식을 발휘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 의료건강 관련 콘텐츠 즉, **‘돌봄서비스의 사회화’** 현상도 증대할 것이다. 한편, 청년층 실업률과 비정규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칫 사회복지비용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 종교인구 변동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학적 변화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기독교의 퇴조와 이슬람의 번성은 해당 교인의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단의 교화정책도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과 인구가 늘어나는 세대의 특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변화 분석을 통한 사회적 서비스 개발로 복지교화 분야를 선점해야 한다.

2. 가족부문 변화상

● **다양한 가족** : 산업사회의 일반적 가족유형으로 알려진 **핵가족은 이미 다수의 가족형태가 아니다**. 개인의 삶에 대한 결정력이 높아짐에 따라 독신 혹은 만혼이 일반화되고 있고, 비혼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 조순가정, 독거가정, 소년소녀가장가정, 동성가정, 무자녀가정, 재혼가정, 기러기가정 등 기존에 불완전하게 여겨졌던 가정의 형태들이 사회적 인정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 **이혼과 재혼** : 이혼 증가는 가족불안정성 증대라는 면에서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어 왔지만, 강요된 ‘운명적 사랑’ 이 개방적인 ‘선택적 사랑’ 으로 변해 가는 문화변천의 징표로도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가정폭력이나 학대는 물론이고, 결혼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나 기대가 깨어졌을 경우 인생의 황혼기라도 자신의 삶을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자세는 **‘사랑과 가정’ 에도 개인화 논리가 침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다문화가정** :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근로자의 적극적 유입으로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2007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8,491건으로 2000년의 12,319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 3세계 국가 여성의 결혼이민이 크게 증가하여 이미 다문화가족 15만 가구, 자녀 5만 명인 다문화사회의 초기 단계로 진입하였으나,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배제로 인해 사회통합에 어려움**이 있다.

▶ 가족은 사회의 기초단위이자 교화의 뿌리로 볼 수 있다. **의식교화**는 정성스런 의례행위를 통해 개인의 생애주기 속에 확고히 자리하며, 가족 구성원 사이의 유대감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가정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가정에 대한 결핍의식을 채워줌으로써 종교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다양한 **가족역할과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의 개발**도 현대인의 가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3. 사회부문 변화상

● **분단체제의 극복** : 북한의 핵개발과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통일 논의가 잠복하고 있지만 남북문제는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돌발적 상황에 의해 언제든지 국면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군사적 측면과는 별개로 생존을 위한 경제개방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에 통일논의는 급진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정부는 미시적 상황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북한체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실질적 통일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신빈곤의 확산** :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한국사회의 빈곤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① **노동빈곤** : 노동을 하면서도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② **상대적 빈곤** :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진다. ③ **복합적 빈곤** : 물질적 빈곤에 더하여 사회적 배제에 따른 심리적 빈곤이 결합된 형태를 보인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노동시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삶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인권과 공동체성이 이윤에 의해 유보되는 한 신빈곤의 고통은 지속될 것이다.

● **위험사회화** : 산업화에 따른 효율성 추구는 위험감수를 강요한다. 사회안전시스템의 미비로 말미암아 자연재해, 대형사고, 산업재해, 강력범죄, 교통사고, 안전사고, 자살사고 등에 국민이 방치되어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위험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어 ‘빈곤의 위험화’ 현상으로 나타난다.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며,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낙제점인 이유를 설명해 준다.

▶ 대중사께서 ‘금강산’의 드러남을 통해 민족이 중흥할 것을 예언하셨듯이 **통일은 민족교화를 넘어서 세계교화와 직결** 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탈북자 포용, 북한동포돕기, 산업기관의 대북교류 등이 실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인간성 파괴 경향에 맞서는 **‘사회적 소수자 보호 운동’**은 사회구원이라는 종교의 본질적 기능을 구현하는 활동으로서 전방위적인 실천이 요청된다.

4. 문화부문 변화상

● **여가의 부상** : 2004년 시장조사기관 노월드(NOP World)사의 ‘일과 여가의 균형’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균에 비해 주당 10시간 정도 더 일하고 8.5시간 더 적게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31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일’ 중심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11년 예정대로 **전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어 노동시간이 연간 2,000시간미만으로 줄어들게 되면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 **웰빙과 영성** : 삶과 여가, 물질과 정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부상함에 따라 산업사회의 발전 패러다임 하에서 이원적 대립항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전체의 조화와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로 통합하려는 가치관**이 대두하게 되었다. 휴식, 명상, 치유 등과 관련된 도서, 종교, 관광,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 **유비쿼터스** : 정보화, 융합화 및 네트워크화의 진전, 저장과 전송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리적, 시간적 거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들기 쉬워지고, 일하는 방법, 사는 방법, 사람과의 관계 등이 크게 변화해 갈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야외활동의 위축을 우려하는 소리도 높아지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개인과 사회의 정보문화 향유 수준을 높임으로써 기술수용능력을 높여야 한다.

▶ **여가의 증대는 사회를 재영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원불교의 ‘전통적+현대적’ 이미지는 심신간 건강한 삶의 표상으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각 교당과 기관은 ‘휴식+오락+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현대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회적 여가의 본산이 되어야 한다**. 한편, 생활의 대부분을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한 채로 살아가는 신세대들을 표적집단으로 삼는 ‘사이버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V. 교단적 요구와 과제

원불교정책연구소 조사연구분과에서는 지난 4월 ‘교단 발전을 위한 10가지 혁신과제 선정 및 교화 활성화를 위한 출가교역자 의식조사’를 통해 출가교역자의 교단에 대한 문제의식을 파악한 데 이어, 9월에는 ‘출가교역자의 직무·생활 만족도 및 이단치교에 관한 2차 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좀 더 구체적인 출가교역자의 삶과 교단조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재가교도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11월 현재 전국적인 재가교도 의식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기존의 조사들을 토대로 교단 구성의 세 축인 ‘교단조직 - 출가교역자 - 재가교도’의 요구를 정리해보았다.

1. 교단조직의 요구

- **교회 활성화 : 교단적 차원의 가장 큰 과제는 교회정체를 타개하는 것이다.** 그동안 교단의 지도하에 교도들이 일심합력한 결과 교세에 비해 우월한 교회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지만 교회성과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교회정책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 **공부역량 제고 : 교회 활성화의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교회자의 공부 역량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정기훈련의 기회가 점차 축소되고 상시훈련의 점검 역시 형식화됨에 따라 교도들의 공부역량은 과거에 비해 위축된 상태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교법을 쉽게 접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법**의 개발이 요청된다.
 - **교단혁신 추진 :** 원기100년성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단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데 출가제가 모두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교단 구성원 사이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교단적 공의를 모으고 전문성에 바탕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혁신 활동**이 필요하다.
- ### 2. 출가교역자의 요구
- **출가서원 성취 :** 출가교역자들은 자신들의 직무현장에서 출가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가장 사기가 떨어진다고 토로한다. 일과 공부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때 발생하는 심리적 위축감은 조직에 대한 몰입수준이 매우 높은 데 비해 직무만족도가 떨어지고 상당한 직무탈진감이 나타나는 이유가 된다.
 - **교단행정 혁신 :** 출가교역자들은 **‘교회 중심의 행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교회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인사, 교회 콘텐츠 개발, 교역자 제도의 혁신, 교역자 발굴과 재교육, 교구 자치제 도입**과 같은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현상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요컨대 다수의 구성원을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행정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삶의 질 향상 :** 전체 교당의 70% 정도가 영세교당인 통계자료를 통해 출가교역자의 상황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출가자들의 월수입 조사에 따르면 70% 정도가 69만 원 이하라고 응답해 교당의 영세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삶의 질을 논하기는 어렵다.

3. 재가교도의 요구

- **교법의 체득과 실현 :** 교도들이 교당을 찾는 이유는 주로 **교법공부를 통한 인격수양과 안심입명**에 있다. 하지만 수준에 맞는 공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원하는 스승이나 프로그램을 택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교법실천으로 교단적 차원의 성취와 사회적 차원의 인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교당의 규모화 :** 교당이 영세하면 외형적 면에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적극적으로 인도하기가 어렵다. 또한, 출석교도가 적으면 교당 유지에 대한 책임감이 커져 편안해야 할 교당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교회구조개선을 통한 적절한 규모화**는 단지 교도들에 대한 배려 차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신력 있는 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다.
- **재가의 역할 및 권한 강화 :** 원불교는 최상위 조직인 수위단회나 중앙교의회에 재가를 참여시켜 출제가의 차별을 두지 않는 조직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단의 모습은 **출가에 비해 재가의 교정 및 교회 참여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가교역자 양성과 활용의 길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권한도 보장해주는 교역자 제도의 개방화가 요청된다.

VI. 원100성업, 무엇을 할 것인가?

이상의 논의에서 종교적, 문명사적, 국제 및 한국사회의 변화 그리고 교단적 요구를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내외부적 환경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는 원100성업의 과제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총체적인 방향을 설정한 후 구체적인 사업과 과제를 기획해야 한다. 과제의 범주는 경산 종법사님의 〈원불교 100년 성업봉찬 5대 지표〉를 따르는 것이 교단적 중지를 모으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제시하는 세부사업들은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가급적 새로운 제안들로 구성해보았다.

1. 주제 및 강령에 대하여 - ‘마음공부로 은혜로운 세상’

- 원불교100년 주제 및 강령은 **교단의 핵심가치를 담아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즉, 원불교도의 공유가치를 사회적 요구와 조화시켜야 한다.

-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대중사님께서 회상을 펴신 목적은 불법과 종교의 혁신을 통해 현대성의 모순을 극복하고 인류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제시하셨다. 따라서 **삼학수행의 ‘마음공부’와 사은신앙의 ‘은혜’의 개념을** 활용하여 우리의 비전을 표현하고자 한다.

▶ 기존의 주제 중 ‘열린 마음으로 백년! 인류희망으로 천년!’은 사회적으로 호소력이 부족하고, ‘하나의 진리! 함께하는 세상!’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원불교적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교단적·사회적 지향을 최대한 함께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마음공부로 은혜로운 세상’ 정도의 용어와 주장**이면 대내외적으로 부담 없이 수용될 것이다.

2. 원기100년대를 준비하는 교단의 핵심가치 10

원100기념사업회의 비전이 아니라 원불교100년 이후까지를 내다보는 교단의 비전을 만들라는 종법사님의 가르침에 유념하며 다음 10가지를 기념사업의 핵심가치로 삼고자 한다.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데 중심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

1. 마음공부: ‘마음공부’는 원불교 수행의 핵심이다. 마음공부는 원불교가 최고라는 인식, 원불교의 것이라는 인식을 세상에 깊이 각인시켜야 한다. 불교의 정맥을 잇는 의미가 있다. 전교도가 마음공부로 진급하며 낙원생활을 하도록 한다. 교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마음공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은혜: ‘은’ 사상은 원불교신앙의 핵심이다. 사은보은의 교법은 과거 불교와는 다른 보편윤리로서 미래지향적 종교의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다. 은혜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변화시켜나가도록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기독교의 이미지가 강한 용어지만 ‘은’적 세계관의 보편화를 위해서도 이 용어를 원불교화할 필요가 있다.

3. 공부 · 훈련 : 출가자들부터 강도 높은 훈련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서원과 기쁨과 보람을 여기서부터 찾아야 한다. ‘공부위주 교화중’의 순서를 유념해야 한다. 교화는 교화자들의 바람직한 변화와 법열 충만한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 출가자들을 위한 공부 · 훈련 프로그램이 곧 교화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시간적, 물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4. 소통 : 진리와의 온전한 소통이 개인적 깨달음이라면, 세상과의 폭넓은 소통은 대중교화로 결실된다. 세상과의 소통 이전에 교단 구성원 간의 진솔한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노력만으로도 교단의 많은 문제들이 치유될 것이고, 구성원들의 사기는 높아질 것이다. 새로운 소통 체계로 합의를 도출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5. 삶의 질 : 기념성업을 통해서 교단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행복도가 높아져야 한다. 그 행복에너지가 교화의 꽃을 활짝 피게 해야 한다. 초기교단 선진님들의 아름다운 희생과 고난을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서도 출가교역자들의 삶의 질을 균질화하고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교역자의 사기진작은 반드시 교단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6. 교화단 : 원불교 조직의 제1 원리는 교화단이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전에 교화단조직의 활성화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공부, 훈련, 행사, 교화 등 모든 일들을 교화단 조직을 근간으로 삼아 진행해야 한다. 다양한 조단 방식이 시도되어야 하고 다양한 운영방식을 실행해 봐야 한다. 특히 교화단을 통한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교단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고 교화발전의 성장점이 될 것이다.

7. 재가 중심 : 출가자들은 공부 · 훈련에 매진하며 신앙 · 수행에 모범을 보이고 기념성업의 전면에는 재가교도님들이 앞장서게 해야 한다. 성금 모금도 재가 단체가 앞장서게 해야 한다. 성업에 앞장선 재가단체와 교도를 출가자들이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되어야 한다. 성업 이후에 재가단체와 교도들이 튼튼히 성장한 모습으로 미래 교단의 주역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8. 세계화 : 교단의 분야별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 일이 선행되어야 세계인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교화가 가능할 것이다. 국내와 국외를 둘로 보지 말고 우리 나름의 기준(global standard) 설정하고 매진할 때 교화력이 향상할 것이다. 프로그램도 시설도 인력도 세계최고로 지향할 때가 되었다. 국내와 국외의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야 한다.

9. 엄밀한 예산 집행 :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해야 한다. 한정된 예산을 제대로 써야 거룩한 기념성업의 뜻을 살릴 수 있다. 사업선정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집행과정 역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의도한 산출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시의적절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10. 미래지향적 교단 혁신 : 원불교 교법의 핵심은 개인의 바람직한 변화와 세상의 바람직한 변화다. 마음공부와 신앙으로 진입하는 삶이 개인의 변화라면 은혜의 확산을 통한 낙원세계 건설은 세상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불법의 시대화 · 생활화 · 대중화는 혁신의 지향점이다. 미래지향적 교단 혁신에 힘을 집중할 때 기념성업의 본의가 살아날 것이다.

3. 경산 종법사님의 <원불교 100년 성업봉찬 5대 지표>의 실현 방안

1. 교화대불공 : 교화를 살리자!

- **목적 :** 교화성장의 전기를 마련, 지속성장의 기틀 수립
- **방침 :** 교정원과 현장 중심의 협의를 통해 직접적인 교화성장 프로그램 지원

3대 3회 설계와 연계한 중장기 교화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실시

- ▶ **마음공부연구원(교화콘텐츠개발원) 설립 :** 교화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재 등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
(예) 12개 교당에 연구인력을 지원(2-3명)해서 주제별 프로그램을 개발 하도록 하고 중앙 사무국(5명 정도)에서 이를 심화시켜 교단과 사회에 보급, 매년 12개 프로그램 개발
- ▶ **마음공부훈련원(교화인재훈련원) 설립 :** 원무 양성 및 교화단장 등 재가교역자를 양성 배출하고 마음공부프로그램 지도자를 전문적으로 훈련 양성하는 기관을 운영, 유능한 출재가교역자를 양성
(예) 매년 원무 100명 양성, 단장 4,000명 훈련, 프로그램별 연수 진행
- ▶ **교화인증제 실시 :** 마음공부프로그램은 물론, 지도자의 프로그램 운용능력을 인증하여 교화인력의 교화력을 객관화하고 점진적으로 향상시켜나감
(예) 마음공부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훈련법과 교화프로그램을 마음공부훈련원에서 훈련 받아 프로그램별로 인증을 받게 함, 마음공부지도사 양성 - 교당에 마음공부방 부설
- ▶ **교화지원재단 설립 :** 어려움에 처한 현장 교화자를 돕고, 현장 교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여 재단 운영, 미자립교당 자립 지원에 역점, 마음공부방 설립 지원
(예) 원기100년 영세교당 제로화 운동, 10만명 성지순례 지원

- ▶ **중장기 교회정책 수립 및 적극적 홍보** :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 우선순위 선정, 사회 흐름 포착, 원불교의 사회적 인지도 및 호감도 향상
(예) 매년 정책델파이, 사회조사, 호감도 조사 실시

2. 자신성업봉찬 : 나부터 공부하자!

- **목적** : 모든 교도가 신앙 · 수행에 적공하여 대중사님 닦아가는 불보살로 진급
- **방침** : 대중 공모를 통해 의견수렴 - 사업선정 - 실시 - 사회적 운동화로 발전시킴
- ▶ **법위향상 운동** : 공부하는 교화단 만들기(출가교화단부터 매달 1박 2일간 향단별 훈련을 실시), 공부의 맥을 대는 심사(心師) 모시기, 공부를 상호 점검하는 법위별 훈련모임 만들기 등 공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각종 활동 지원
- ▶ **단장되기 운동** : 마음공부훈련원과 연계된 교화단 단장 · 중앙 훈련을 통해 법위향상과 교회력 배양, 나아가 현재 5,000개 정도의 교화단을 20,000단으로 늘릴 수 있도록 매진
- ▶ **전교도 공동 유무법 운동** :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유무식남녀노소 모두 흥미를 갖고 깊은 단계로 몰입할 수 있는 공부법을 제공
(예) 마음공부연구원에서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마음공부훈련원에서 전문가를 양성하여 사회적 마음공부 운동으로 확산
- ▶ **전교도 1주 1편 일기 쓰기 운동** : 구체적인 일기 기재 훈련, 우수일기 모음집 출판, 일기지도 전문 인력 양성, 일기를 통한 마음공부 성공 사례 발굴로 사회운동화
- ▶ **1분(10분, 1시간) 선행기 운동** : 다양한 계층을 목표로 한 선법교재 배포, 선 전문가 양성 과정 개설, 선 체험집 발간, 선에 대한 친근한 접근을 유도하여 사회적 확산을 가능케 함

3. 세계주세교단건설 : 교단혁신으로 세계로 미래로!

- **목적** : 세계적 종교로의 도약을 위한 교단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 교단으로 거듭남
- **방침** : (국내) 교단혁신사업과 연계 - 미래지향적 교단 혁신 추진
(해외) 의견수렴에서 사업선정까지 해외교화자 중심으로 전개
- ▶ **교회중심의 행정 혁신** : 인사, 육영, 교육, 훈련, 예산, 문화, 복지, 산업 등 모든 분야의 활동은 '교회 위주 사업 중'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 ▶ **교화단 공동교회제 확대** : 교화단 공동교회제를 보완 확대하여 출가교역자의 기초생활 보호 및 전문교회 여건 마련, 영세교당의 통합 방안 및 토탈교회 방안 모색
- ▶ **교법의 보편윤리화** : 세계화 정보화로 인한 미증유의 문명적 전환에 처하여 문화적 차이를 뛰어 넘어 인류의 공통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교학적 연구 수행
- ▶ **세계교회지원재단 설립** : 국제교회와 관련한 교서번역, 콘텐츠개발, 인재양성, 교회지원활동 등을 수행
- ▶ **마주총부(원달마센터) 건립** : 세부적 사업계획은 세계교회지원재단 준비위를 중심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

4. 대자비교단 : 세상의 아픔을 품어 안아라!

- **목적** : 사은님 은혜에 보은하는 실천운동으로 광대무량한 낙원건설
- **방침** : 은혜심기 운동본부를 확대 개편한 후, 봉공회, 청운회, 여성회, 청년회 등 유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선정 및 추진, 사은사오의 교법 정신을 구현하도록 기존 단체별 활동을 조정하고 전문화, 징계 받은 출재가교도에 대한 광범위한 대사면 실시

- ▶ **천지보은** - 은 사상에 바탕한 새로운 환경운동 전개
(예) 국내외 시민조직과 연대하여 '천지보은회'의 활동을 국제화함
- ▶ **부모보은** - 복지 / 자선 / 무자력자 보호, 효사상 · 경로사상의 현대화 · 세계화
(예) '봉공회'를 활용한 무자력자 보호 및 고령화에 따른 독창적인 복지 프로그램 창안
(예)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가족상담소 운영
- ▶ **동포보은** - 자리아타의 새로운 사회운동, 전 교도의 자원봉사 활동,
전 지구적인 신자유주의적 전횡에 맞서는 대안적 경제 패러다임 제시 및 실천운동
(예) 교당의 지역적 특성과 교도의 연령에 맞는 전 교도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예) '청운회', '청년회 - 평화의친구들' 조직을 확대 · 개편하여 국제 구호단체 위상 강화
(예)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장기적 안목의 통일운동단체를 출범시킴
(예) 기업윤리를 강제할 수 있는 소비자운동 및 공익적 차원의 사회적 기업 설립
- ▶ **법률보은** - 법률개폐 및 법률구조 운동
(예) '인권위원회'와 '법조인회'를 확대한 '법률보은회'의 출범
(예) 원불교인권위원회의 실무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영향력 확대
- ▶ **자력양성** -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진화를 위한 운동
(예) '여성회'를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 전국 단위의 사회적 약자 지원 '은혜의 집' 운영
- ▶ **지자분위** - 각종 차별을 척결하고 지자를 우대하는 사회풍토 조성 운동
(예) 교육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평등 운동
(예) '교사회',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참 스승 되기 운동
- ▶ **타자녀교육** - 모든 교당, 기관이 참여하는 장학 · 육영 운동
(예) 소년소녀가장 지원 운동, 전무출신지원자 발굴 · 지원 운동
- ▶ **공도자 숭배** -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에 대한 홍보 및 지원
(예)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소태산 사회공헌상' 수여

5. 보은대불사: 대산 종사님을 인류의 스승으로!

- **목적**: 대산종사님 은혜를 되새기고 그 공덕에 보은함, 인류의 스승으로 추모존송
- **방침**: 대산종사탄백분과 중심의 사업선정, 원백기념성업과의 전체적 조화에 유념
- ▶ **추모사업**: 법문집 출간, 성탑건립,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 ▶ **심전계발**: 교화대불공과 연계하여 대산종사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
- ▶ **종교연합운동**: 종교 갈등의 중재, 제 3세계 종교지도자와의 교류, 관련 회의 유치 및 지원
- ▶ **학문적 조명**: 대산종사님 사상의 의의를 되새기는 학술대회 개최
- ▶ **추모 순례**: 대산종사님의 체취와 업적이 살아있는 성지 순례 프로그램 개발

집을 지을 때

세계최고 수준의 친환경건축을 하자.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passive house는 이미 대중화.

집 한 채를 지어도 심사숙고해서 새로운 문화창조해야.

환경운동 따로, 건축 따로, 신앙 따로, 소비운동 따로가 아니라...

일반교화학교

한 달 동안의 법회운영과 교화계획을 준비하고 연수.

향단회를 매달 1박2일로 한다면 그때 진행하면 좋을듯.

여러 교무님들이 한자리에서 연마하고 준비하면 훨씬 질 높은 교화 가능할 듯.

사업 제안 / 선정 / 추진 / 평가

기본분과 조직을 제안팀, 선정팀, 추진팀, 평가팀으로 개편.

5개 제안팀별 사업제안 - 3개 선정팀에서 각팀별 기준에 의해 선정 - 각사업별 추진팀 구성 - 3개 평가팀에서 팀별 기준에 의해 평가
이 모든 과정을 상임회 상임위에서 총괄감독, 사업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열어라(opening)! 맡겨라(empowerment)! 엮어라(networking)!

가난한 작가들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그 운영을 그들과 재가단체에 맡긴다. 가난한 신예작가들에게 거의 무료로 대여해준다. 젊은 사진 작가들에게 원불교를 주제로 공모전을 연다. 그 곳에서 전시회를 열어준다. 작품집을 만든다. 홍보물에 활용한다. 이 작가들과의 인연을 계속한다. 모든 행사들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

Why not?

세계최고의 미술 연구소, 마을공부프로젝트, 왜 안돼?

세계최고의 디,비작업, 왜 안돼?

세계최고의 청소년여름캠프, 비교도들도 교무님들에게 청탁하는 프로그램, 왜 안돼?

누구나 입고 싶어 하는 멋진 유니폼, 왜 안돼?

월간 '원광'을 '마을공부'로 바꾸어서 전국가판대에 깔 수 없나?

교무님들도 주5일제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 6일제라도...

명상전문교당, 청소년전문교당, 일기쓰기전문교당, 예절전문교당...

원100 이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1. 사람들이 남아야 2. 단체와 조직이 3. 두터운 신뢰가 (함께 일한 비교도)
4. 인연의 끈이 (교단과 비교도 사이에) 5. 좋은 느낌이 (사회에, 세계에)
6. 역사로 남아야 한다(역사적 의미가 있어야)

원100

이런 저런 생각들

●●● 이번 새미르통신 7호는 원불교100년 기념성업회의 요청으로 원100사업안에 대한 구상안을 담았습니다.
정책연구소의 공식 계획안이 아니라 교단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희망찬 결백백년대를 열어갈 사업안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복발전소

원불교 정책연구소

tel 063-850-3382 fax 063-850-3383
570-754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불교 중앙총부